

서울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會議錄

(2011학년도 제1차)

| | | | |
|----------|-------------|------|----|
| 회의소집통보일자 | 2012. 1. 16 | | |
| 위원정수 | 10 | 제적위원 | 10 |

1. 일시 : 2012년 1월 19일(목요일) 오후 1시 00분

2. 장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1층 회의실

3. 출석위원(10명) :

위 원 김 경 희, 위 원 김 윤 희, 위 원 박 종 묵,
위 원 박 현 석, 위 원 서 유 석, 위 원 송 순 옥,
위 원 엄 봉 석, 위 원 정 영 애, 위 원 채 원 석,
위 원 허 묘 연 (가나다순)

4. 결석위원(없음)

5. 회의안건

- 1) 위원장 선출의 건
- 2) 2012학년도 등록금 심의
- 3) 기타 안건

6. 회의진행

박현석 위원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안건심의 :

허묘연 위원 : 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들의 소개를 하다. 제1호 안건인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위원장으로 채원석 위원에게 부탁하다.

채원석 위원 :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고등교육법,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학칙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다. 제1호 안건인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추천을 요청하다.

김윤희 위원 : 위원중에서 학교 업무 파악과 원활한 진행등을 고려하여 채원석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다.

김경희 위원 : 김윤희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다.

채원석 김윤희 김경희 허묘연 2012.1.16
박경숙 엄봉석 박현석

- 박종묵 위원 김경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 채원석 위원 : 김경희 위원의 동의와 박종묵 위원의 재청에 따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이에 채원석 임시위원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대 위원장으로 채원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 위원장 :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말하고, 제2호 안건과 관련하여 박현석 위원의 설명을 요구하다.
- 박현석 위원 : 제2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자료와 같이 등록금 책정의 기초자료에 대해 설명하다.
- 송순옥 위원 : 2012학년도에 진행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박현석 위원 : 장학금을 비롯한 학생경비의 확보, 교육 콘텐츠 개발 강화, 스튜디오 확장을 비롯한 연구동 건립, 신규학습관 개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주요 사업과 규모에 대하여 설명하다.
- 엄봉석 위원 : 신규사업계획 중 학습관 개관에 대해 묻다.
- 박현석 위원 : 학습관의 임대 및 매입현황을 설명하다. 학습관개관은 매입이 효율적이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절감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말하다.
- 박현석 위원 : 2012학년도의 세출예정액과 세입예상액을 설명하다. 세출대비 세입 규모가 부족함을 설명하다. 주요사업 및 신규학과 개설 등으로 현재의 등록금 수준으로는 세출예정액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나 등록금을 동결해야 할 것으로 말하다.
- 서유석 위원 : 세입부족액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묻다.
- 박현석 위원 : 재등록율의 제고, 신편입생 유치와 경상비 절감 등으로 충당할 예정임을 말하다.
- 엄봉석 위원 : 타학교의 등록금 하락등은 없는지 묻다.
- 허묘연 위원 : 타학교도 등록금이 동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 엄봉석 위원 : 학생 장학금 규모의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묻다.
- 허묘연 위원 : 재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두루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장학금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많이 배정하였음을 말하다.
- 김경희 위원 :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등록금 인상 또는 대학의 재원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체인숙, 김윤희, 김경희 허묘연 2012. 3. 26. 송순옥 서명
임원석 박현석

- 김 윤 희 위 원 : 김경희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이므로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재원의 다양화와 세출의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다.
- 박 종 묵 위 원 : 재정 수입의 70%가 등록금에서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많이 기대하고 있음을 말하다.
- 박 현 석 위 원 :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기는 어려움을 말하다. 세입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학교의 세출절감과 세입재원의 다양화 등의 자구노력으로 현 수준의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다.
- 정 영 애 위 원 : 세출규모를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임을 설명하다.
- 박 종 묵 위 원 :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궁금하며, 총학생회장의 공약을 실천하면서 재정이 필요하고 이를 대학과 논의하면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 실천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다. 이에 예산확정 전 총학생회와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박 현 석 위 원 : 예산수립 기간과 일정이 맞다고 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하다.
- 김 윤 희 위 원 : 기존에는 학생들과 등록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없었으나 대학과 학생이 같이 심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음을 말하다.
- 김 경 희 위 원 : 대학에서 예산수립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임을 말하고 학생위원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학교측의 노력도 같이 생각한다면 학교측의 예산수립에 대하여 동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다.
- 김 윤 희 위 원 : 등록금 의존율이 매우 낮음과 같이 학교와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 허 묘 연 위 원 : 대학은 자구노력을 통하여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2012학년도의 학교운영 상황을 살펴본 후에 등록금 조정여부를 논의하자고 말하다.
- 박 종 묵 위 원 : 학교측에서 부족한 재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학생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2012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한다고 말하다.
- 위 원 장 : 제2호 안건인 2012학년도 등록금 심의에 대하여 대학교 및 대학원의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심의함이 어떤지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정 영 애 위 원 : 등록금 동결에 동의하다.
- 엄 봉 석 위 원 : 정영애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체813, 김윤희, 김경희 허묘연 51963 정영애 송승우
박종묵 엄봉석 박현석

위 원 장 : 정영애 위원의 동의와 엄봉석 위원의 재청에 따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이에 위원장은 2012학년도 등록금을 2011학년도와 같이 동결하는 것으로 심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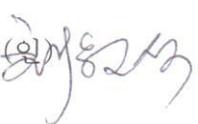
서 유 석 위 원 : 2012학년도에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만큼 대학과 학생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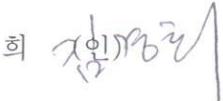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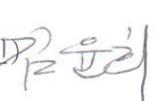
위 원 장 :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추가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타 안건이 있는가를 묻다.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1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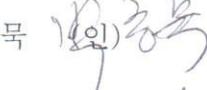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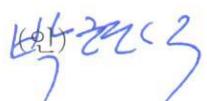
7. 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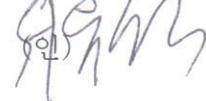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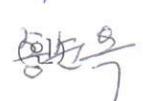
위원장이 다른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 하니 오후 2시 10분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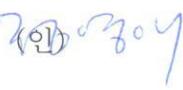
2012년 1월 19일

위 원 장 : 채 원 석 

위 원 : 김 경 희  위 원 : 김 윤 희 

위 원 : 박 종 목  위 원 : 박 현 석 

위 원 : 서 유 석  위 원 : 송 순 옥 

위 원 : 염 봉 석  위 원 : 정 영 애 

위 원 : 허 묘 연 

(가 나 다 순)